

## 또, 구속영장 청구에 공정위 고발... 기업 수난사 언제까지

현 정부 들어 기업들이 권력기관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으며 불안에 떨고 있다. 미국 금리 인상과 신흥국 금융위기 등을 맞아 어려워진 경제여건에 겹쳐 기업 총수에 대한 수사, 각종 거래내역에 공정위 조사 등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삼성그룹 각 계열사에 대한 정부의 '옥죄기'는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정책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까지 떨어뜨리고 있다.

## 자진사퇴 안해 과심죄? 예상못한 영장청구에 술렁

### 경찰, 황창규 KT 회장 등 4명 영장

18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KT의 황창규 회장 등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선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창규 회장 등은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황 회장의 구속이 앞으로 KT 경영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KT 사내에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가 있다.

KT 관계자는 "황 회장이 경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한 만큼 영장까지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황 회장 측은 경찰에서 "그런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나 기억이 없고, CR부문의 일탈행위로 판단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황 회장의 거취 문제와 직결될 전망이다. 황 회장이 구속될 경우 KT는 최고경영자 공백 상태를 맞게 되기 때문이다. 거액이 들어가는 5G 투자를 비롯해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등을 대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지금 시점에 최고경영자 자리를 오래 비워둘수록 타격이 크다.

당장 황 회장의 부재는 5G 주파수 경매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주파수 경매과정에서 SK텔레

구분	의뢰명	금액(만)	비고
위	위원장	500	
	간사(소위)	1,000	
	법안소위	500	
	법안소위	500	
	법안소위	500	
	법안소위	500	
	법안소위	500	
	법안소위	500	
	법안소위	500	
	법안소위	500	
위	위원장	500	
	간사(소위)	1,000	
	법안소위	500	
	법안소위	500	
	법안소위	500	
	법안소위	500	
	법안소위	500	
	법안소위	500	
	법안소위	500	
	법안소위	500	

KT가 '상품권' 수법으로 국회의원들에게 '또개기' 후원금을 보낸 내역서. /연합뉴스

콤과 LG유플러스가 치열한 경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회장이 영장 받는 상황에서 KT가 5G 주파수에 과감한 배팅을 하지 못했다는 추측이 나오지만 확인되지는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경찰의 구속영장 자체가 무리하다는 주장도 제시하고 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혐의 사안 자체가 전혀 새롭지 않은데 경찰이 과잉의욕으로 일을 크게 만들려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만일 KT 황창규 회장이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나게 된다면 이후 몇개월 동안을 들여 새로운 회장을 선임해야 한다. 또한 새로 부임한 회장은 업무 파악에만 다시 몇개월을 소비하게 된다"면서 "그동안 중요한 사안이 산적한 KT가 경영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안병도 기자 catchrod@metroseoul.co.kr

## 銅 안정수급 위해 회사 설립 7년 지나 통행세 혐의 고발?

### 공정위, LS 경영진 6명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내부거래 혐의로 LS그룹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0억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계열사별로 과징금은 LS 111억 4800만원, LS동제련 103억 6400만원, LS전선 30억 3300만원, LS글로벌 14억 16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LS, LS동제련, LS전선 법인과 그룹 총수인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개인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LS(구 LS전선)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그룹 내 전선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통행세를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LS글로벌은 LS전선이 51%, 총수일가 3세 12인(49%)이 출자한 회사다. 2005년 전기동 통합구매 사업을 수행을 목적으로 LS전선이 기획해 '금융간담회'에서 최종 설립이 승인됐다. 금융간담회는 LS의 최고이사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LS그룹 계열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결정 기구로 총수일가 6~7명으로 구성됐다.

이후 LS전선은 LS동제련에게 그룹 내 전선 계열사(LS전선·가온전선·LS메탈·JS전선)에 동제련 전기동을 판매할 때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거래하도록 지시했다.

LS글로벌은 LS동제련으로부터 구매할 물량을 4개 회사에 판매하면서 고액의 이윤을 붙였다. 이에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영업이익의 31.4%, 당기순이익의 53.1%인 130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냈다.

LS전선은 해외생산자등으로부터 구매하던 수입 전기동도 LS글로벌을 통해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했다. LS글로벌은 이 과정에서도 해외 생산자와 가격을 협상 및 결정하지

않았다.

LS글로벌은 고액의 차액을 붙여 LS전선에 수입 전기동을 판매했다. 이에 LS글로벌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영업이익의 16.4%, 당기순이익의 27.7%에 달하는 이익 67억 6000만원을 손에 쥐었다.

(주)LS(구 LS전선 포함)는 이 과정을 기획·설계·교사했고 실행과 유지에 관여했으며, LS글로벌 설립 초기부터 경영상황과 수익을 총수일가에 보고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경영·법무 진단을 벌이며 대응책을 마련하고 계열사와 공유했지만, 법 위반 행위를 중단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부당내부거래로 LS글로벌이 챙긴 금액은 전체 당기순이익의 80.9%인 197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LS글로벌 지분을 소유하던 총수일가 12명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지분 전량을 LS에 매각, 투자금액의 19배에 달하는 총 93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LS글로벌은 국내 전기동 거래 시장에서 공정거래 질서도 심각하게 훼손했다. 공정위는 LS글로벌이 업계에서 유력 사업자 지위를 확보하면서 다른 경쟁 사업자의 신규 시장 진입도 막았다고 설명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 현대기아차, 북미·유럽·인도 권역별 자율경영

### 글로벌 현장 경쟁력 강화나서 고객요구 능동대응 조직 구성

현대·기아자동차가 북미와 유럽·인도에 각각 권역본부를 설립하고 글로벌 현장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현장 중심 자율경영 체제 강화에 나선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현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18일 현대자동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는 북미·유럽·인도 권역본부를, 기아차는 북미·유럽 권역본부를 각각 신설하기로 했다. 각 권역본부는 해당 지역 상품 운영을 비롯한 현지 시장전략·생산·판매 등을 통합 운영하고 시장과 고객 요구에 능동 대응할 조직으로 구성된다.

현대차 북미권역본부는 미국 생산·판매법인인 캐나나, 멕시코 판매법인인 포함되며 유럽권역본부는 체코와 터키 생산법인을 비롯해 현지 판매법인으로 이뤄진다. 또 인도권역본부는 인도 생산·판매법인인 포함된다.

기아차 북미권역본부는 미국과 멕시코의 생산·판매법인과 캐나다 판매법인, 유럽권역본부는 슬로바키아 생산법인과 현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사옥.

지 판매법인으로 각각 구성된다.

각 권역본부에는 기획·재경·상품·고객 경험 등 별도 조직도 신설된다. 기획·재경 조직은 해당 국가별 실적을 종합하고 생산·판매 조정과 권역 합산 손익 관리로 사업 운영을 최적화하며, 각 권역별 사업성과 극대화 역할을 수행한다.

상품, 마케팅, 딜러·서비스 조직은 지역별 시장 수요를 선제 파악하고 이를 반영한 전략을 수립해 산하 법인별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중장기 관점으로 일관된 고객경험 가치를 제고하는 역할도 맡을 예정이다.

현대·기아차는 2019년까지 글로벌 시

장에서 각 지역 특성에 맞춘 권역본부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글로벌 자율경영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번 권역본부 조직 도입은 현대·기아차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강력한 변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

장기적인 계획에 기반해 본사와 글로벌 권역본부의 사업 운영체계 전반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권역별로 한층 정교해진 현지 맞춤형 상품 전략 및 운영이 현장 주도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권역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될 경우 해외 우수 인재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기존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경쟁이 이뤄지는 현 상황에서 지속 성장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직 개편은 글로벌 사업 현장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미래의 성장 방안을 적극 모색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현대·기아차가 전세계 소비자들로부터 사랑 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사 차원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각 지역의 권역본부장은 글로벌 감각은 물론 오랜 기간 해외시장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 시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들로 진영을 꾸렸다.

현대차 ▲북미권역본부장에는 브라질 법인장 이용우 부사장 ▲유럽권역본부장은 유럽관리사업부장 최동우 부사장(승진) ▲인도권역본부장은 인도법인장 구영기 부사장이 임명됐다. 기아차 ▲북미권역본부장은 현대차 사업관리본부장 임병권 부사장 ▲유럽권역본부장은 유럽법인장 박용규 부사장(승진)이 임명됐다. 공석이 된 현대차 사업관리본부장에는 현대차 유럽법인장 김형정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해 발령했다. /양성운 기자 ysw@

## 外人, 주식 '팔자' 올 들어 3兆 매도

국내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팔아치운 규모가 3조원을 넘어섰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5월 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3800억원에 순매도했다. 지난 4월 순매도로 전환한 이후 두달째 매도세가 지속됐다.

코스피시장에서 7000억원을 매도한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3000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달 말 기준 보유규모는 623조 9000억원이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2조 4000억원으로 매도규모가 가장 컸다. 미국과 아시아에서는 각각 1조 8000억원, 3000억원 규모로 순매수했다.

국가별로는 영국(-1조 7000억원), 스위스(-4000억원), 사우디(-2000억원) 등이 순매도했으며, 미국(1조 8000억원), 캐나다(2000억원) 등은 순매수에 나섰다.

반면 채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상장채권 5조 1090억원을 순매수해 총 3조 2660억원을 순투자했다. 올 들어 유입세가 이어진 가운데 순투자 규모도 4월 7000억원에서 크게 확대됐다.

보유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총 108조 4000억원(전체 상장채권의 6.3%)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